스위치, 수소연료전지 개발 박차

1200만~1800만유로 투자 2010년 상용화 ... 금속가격 · 가스축적기술 난제

세계 최대 시계 메이저 스위치(Swatch)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소형차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atch 대변인은 8월24일 니컬러스 하예크 회장이 스마트카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면서 하예크가 파트너들과 모두 2000만~3000만스위스프랑(1200만~1800만유로)을 투입해 2010년 상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예크는 1990년대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와 연대해 스마트카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시도했으나 다임러크라이슬러가 가격경쟁력 등을 우려해 연료전지 대신 디젤과 가솔린으로 돌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얼마전 스위스 에너지기업인 E 및 폴 셰러 리서치와 연대해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미 연료전지 개발에 나선 Honda와 GM 및 프랑스 PSA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비싼 금속가격 극복과 수소발생비용 감소, 그리고 가스축적기술 업그레이 등의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예크는 1980년대 밝은 색상의 스위치 플라스틱시계 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돋보이는 경영 아이디어를 통해 스위치를 세계적인 시계 생산기업으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8>